

“불교 제대로 알리고 싶어 한평생 불서 보시”



한해가 저물고 있다. 새해를 설계하는 여유 보다는 못 다 한 일을 정리하는 마음이 더 바쁘다. 거기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 나라가 들썩거린다. 해가 지는 서해 바다는 시커먼 기름에 뒤덮여 신음하고 있다. 2007년이 이렇게 스산하고 어수선하게 저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출기만 한 것은 아니다. 언 손을 녹일 작은 모닥불 같이 아름다운 일들도 많다. 180편의 영화를 제작한 원로 영화제작자 한갑진 (주)한진영상 회장. 불교계에서 한 회장은 영화제작자라는 이름보다 '책 보시'를 하는 전법사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순수 집필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한진출판사)에서 간행한 책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찰과 불자들에게 보시해 온 한 회장이 올 겨울 펴낸 <근본불교와 대승불교의 회통> 700권을 조계사에 기증했다. 이제 해가 바뀌면 86세가 되는 한 회장이 책을 보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본불교와 대승불교의 회통>은 어떤 책입니까?
제목 그대로입니다. 부처님의 육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전의 가르침에 따르는 근본불교와 그 후대에 일어난 새로운 불교운동의 결과인 대승불교가 하나로 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소승불교(근본불교)와 대승불교라는 말로 두 가지의 불교를 얘기 해 왔습니다. 그 두 가지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뿌리이고 한 줄기란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그 근원에 대한 고찰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승과 대승이라는 개념의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소승과 대승의 개념과 역사적 종교적 의의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둘을 새로운 불교의 패러다임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논리로 쓰여진 것입니다.

-소승(근본)불교와 대승불교의 회통 가능성을 어디서 보셨는지요?

교리적으로나 역사 사상적 배경을 설명하려면 책을 다 읽어 드려야 하겠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 이유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불자들의 시야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소승에 해당하는 남전(南傳)과 대승에 해당하는 북전(北傳)의 전통은 인도불교 중국불교 한국불교 등의 지역적 제한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적 제한이란 결국 경전의 이질적인 해석과 유훈이 핵심인데 이제 그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 즉 다양한 문헌에 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스리랑카 등에 전해지는 수많은 근본불교 경전들과 한역을 중심으로 전해 온 경전들의 차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고 그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온전히 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승(근본)과 대승의 분별적 사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반합의 논리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원음인 근본불교와 그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불교운동인 대승불교를 정과 반의 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힘의 불교 즉, 소승과 대승 불교가 회통 된 불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불교는 어떤 종교다'라고 정의의 내리신다면?
'인간의 종교'입니다. 근본불교도 대승불교도 모두가 인간의 불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전통이 다를

뿐 근본은 같다는 겁니다. 불교는 결코 하늘 저편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 안쪽에 있는 무한한 진리를 깨우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에게 돌아가(歸依)야 합니다. 여기서 부처님이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지혜가 바로 불교의 핵심이고 그 핵심을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自歸依)는 부처님의 유훈은 바로 인간의 종교로서 불교적 가치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사물에 대한 철저한 분석적 해석이 우주의 진리를 깨우치는 근간이라는 것도 불교만의 우주관입니다. 깨달음의 종교라는 말이 진리로 돌아가는 길의 자각을 말한다면, 그 역시 인간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쓰고 전해야겠다는 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알기 쉬운 불교사> <부처님의 생애> <인도의 불교> <부처님 생애와 가르침> 등 10권이 넘는 책을 쓰거나 편찬해서 사찰과 신원단체 등에 보시했습니다. 책을 써서 돈을 벌고자 하는 생각은 추후도 없었고 그저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신심을 깊게 다질 수 있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바라는 것이 없었으므로 늘 마음 편하게 글을 쓰고 책을 낼 수 있었습니까.

-또 다른 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네, '대한민국 불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본불교와...' 700권 조계사에 보시 소·대승불교 '새 패러다임' 승화 주장

-그간 많은 불서를 저술하시고 보시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제가 처음으로 쓴 불교서적은 <알기 쉬운 불교>(1975년)입니다. 임종을 앞둔 아버지에게 받아심경을 읽어 드렸는데 매우 편안해 하시더군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계속 들려 드렸고 아버님은 아주 편안한 자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신촌 봉원사에서 49재와 1년 탈상을 하게 되어 거의 매일 봉원사를 다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초보자가 읽을 만한 책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영화사일로 일본을 드니다며 일본에서 발간된 불교 교리서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나 인도 등지를 다니면서 자료를 모으고 일본의 서적들도 모아 읽고 연구했지요. 그렇게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점점 흥미를 느끼고 신심이 깊어졌습니다. 강남 봉은사 신도회장에 하게 됐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불자가 되었고,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불자들이

역사에서 불교가 어떤 존재인가를 들여다 보자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불교는 매우 존중받던 시절도 있었고 말 할 수 없이 억압 받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불교는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를 이끌어 오며 민족의 중요한 본질을 지켜 주었거든요. 신라불교의 그 찬란한 정신과 문화를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불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지 저는 총체적인 역사 인식 아래 그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아주 건강해 보이십니다.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따로 있으신지요?

특별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적당한 운동과 먹는 것 조절하고 잠 잘 자는 것이지요. 나는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 아내와 산책을 합니다. 3Km 정도를 걷고 나서 목욕을 한 뒤 아침에 식사를 합니다. 그런 뒤에 야채를 중심으로 하는 식사를 하는데 하루 중 아침을 가장 든든하게 먹습니다. 대략 20가지가 넘는 야채와 곡물들을 조금씩 쟁겨 먹거든요. 점심은 간단



히 그리고 저녁은 과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낮의 일과는 거의 정해진 시간에 맞춰 지냅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전부지만, 그래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생활도 중요하지만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매달리고 화

를 자주 내면 육체적으로 조절한 건강도 금방 상해버립니다. 자주 병원에 다니는 것도 필요합니다. 늙은 육신이 의지할 곳으로 병원보다 좋은 곳이 없잖아요? 자주 걷기를 하고 몸의 상태를 체크하면 그만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글=임연태 부국장, 사진=박재원 기자

투투컴퓨터

www.twotwocom.co.kr

네이버에서 투투컴퓨터를 치세요! 사주대전, 금강장사,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강장사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한눈에 보이는 신도관리! 철저한 사후관리!

회원관리/회원관리/영가관리/생일관리/명함관리/모둠퉂리/일정관리/회계관리/신수보기/전체신도인쇄/자료정리와 백업기능... 투투컴퓨터의 금강장사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용 종합 역학 소프트웨어

사주대전은 무료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지고 강력해지는 사주대전의 모습을 투투컴퓨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리, 주역, 귀곡, 자미, 기운, 궁합, 성명, 택일, 당사주, 토정비결, 운운육기

홈페이지 제작

1. 제작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문담당직원이 직접 방문 상담
2. 제작 후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 컨설팅지원
3. 검색사이트 일반등록 무료대행

“사찰난방”

저렴하고 강력한 한열나무보일러가 최고입니다.

초대형 나무보일러는 역시 한열테크가 가능합니다.

구입시 할부가능

- 수평이며 연도가 3배수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대의 보일러로써 나무를 태운열기가 앞-뒤-위-아래, 다시 앞-뒤로 열기 3번 돌아 열효율이 높습니다.
- 화실이 크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화실이 크기때문에 길고 굵은 나무를 넣을 수 있어 난방이 편리합니다.
- 연도구조 청소가 쉽습니다. 나무를 태우면서 생기는 목초액이 연통에 붙어 연도를 막히게 하지만 연도 구조를 간단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청소가 쉽습니다.
- 롤 스위치가 있어 온도조절이 쉽습니다. 방인의 스위치로 온도조절이 가능하므로 대단히 편리합니다.
- 대형사찰 복지시설등 200평이상 난방 및 온수가 가능한 기술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200평이상의 대형 공간에도 난방 및 온수 사용이 가능한 검증된 기술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A/S인내

무상서비스

-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내외)의 보일러 본체의 부품불량 및 문제 발생시 무상수리 및 무상교환 가능합니다.

유상서비스

- 전차체변으로 인한 고장
- 전기사용 잘못으로 인한 고장
- 모타 펌프 이상으로 인한 고장
- 본사의 설치도면을 가지고 개인 설비업자의 임의 설치로 인한 고장

서비스 신청요령

- 매매계약서 보관
- 보일러에 이상이 있을시 설치 대리점으로 문의

대한민국 업계 최초 발명특허, 실용신안, 국제표준, 기술평가 결정서를 획득한 기업은 한열나무보일러가 유일합니다.

△대형방열판 △기법 △화원

HYT 한열나무보일러

주소: 경북 구미시 선산을 완전히 432-29번지
전화 054)482-3339 / 휴대전화 016-255-5191
공장: 경북 영천시 고경면 용전리 382번지
전화 054)333-5191 / 팩스 054)338-1006

창업하실분 연락바랍니다